광주·전남 명사수들 '월드컵 金' 정조준

2022 창원장애인사격월드컵 15일 열전 돌입…김근수·김관욱·임은빈·박동안·이윤리 등 金사냥

세계 19개국 232명 출전 40개 종목 120개 메달 경쟁

2022 창원장애인사격월드컵에 출전하는 광주선수단이 10일 창원국제사격장에서 선전을 다짐하는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뒷줄 왼쪽부터 이숙희(근로지원), 윤금석 감독, 황해화(로더). 앞줄 왼쪽부터 임은빈, 김관욱, 김근수.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제공〉

2022 창원장애인사격월드컵대회가 15일부터 경남 창원국제사격장에서 막을 올린다.

패럴림픽과 세계선수권대회에 이어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이번 대회는 세계장애인사격연맹(WSPS)이 주최하고 대한장애인사격연맹(회장 문상필)이 주관해 오는 15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다.

40개 종목 120개의 메달이 걸린 이번 대회에는 전 세계 19개국 232명이 참가해 실력을 겨룬다. 광주·전남 선수를 비롯해 2022년 장애인사격 국가대표 선수단 23명 등이 참가한다.

이번 대회는 2024 파리패럴림픽 및 2022 알아인 세계장애인사격선수권대회, 2022 항저우 패러아시안게임 출전을 위한 최소자격점수(MQS)를 획득할 수 있는 대회로 모두 20개 종목(권총 6개·소총 11개·산탄총 3개) 경기가 열린다.

광주·전남에서는 김근수(광주시청)가 소총종목에 출전하고 권총에 김관욱, 임은빈(이상 광주시청), 신연우, 원석희가 권총, 박동안(광주 일반)도 소총종목에 참가한다. 전남에서는 이윤리가 소총 종목에 출전하는 등 7명의 선수가 출전한다.

김근수는 메달이 유력한 선수다. 2016년 리우패럴림픽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그는 2017년, 2018년, 2019년 장애인사격세계선수권대회 및 월드컵대회에서 세계신기록을 포함한 단체전 금메달 7개와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하고 개인전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를 획득한 바 있다.

김관욱 역시 2019년 하노버국제사격대회에서 단체전 은메달을 획득한 실력파다.

박동안도 2019 알아인국제사격월드컵대회에서 단체전 금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하고 국내 전국체전 및 각종 대회에서 메달을 목에 걸었다. 원석희도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단체전 은메달을 획득, 이번 대회 메달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임은빈과 신현우의 활약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윤리는 강력한 메달 획득 후보다. 2021년 장애인사격 국가대표로 2020도쿄패럴림픽에 출전해 5위의 성적을 거뒀으며, 2008년 베이징패럴림픽 금메달, 2016년 리우패럴림픽 은메달 등 국제대회에서 기량을 검증받은 선수다.

대한장애인사격연맹은 올해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4년 연속 국내에서 월드컵을 개최하기로 했다.

사격 월드컵은 주로 유럽에서 열려왔는데, 우리나라에서 꾸준히 대회를 진행하면서 아시아와 국내 사격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장애인세계선수권대회 유치도 목표로 삼고 있다.

문상필 대한장애인사격연맹 회장은 "WSPS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4년간 월드컵대회 국내유치를 확정지었다"며 "이번 대회를 시작으로 4년간 한국 장애인사격이 한 단계 발전하고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대회인 만큼 많은 국내선수들이 국제대회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역대 최고의 성공대회가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과 호응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박희중 기자

광주FC, 산드로·정호연·김현훈

K리그2 31라운드 베스트11 선정

프로축구 광주FC 산드로와 정호연, 김현훈이 K리그2 2022 31라운드 주간 베스트11에 선정됐다. 〈사진〉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0일 "K리그2 2022 31라운드 5경기를 평가한 결과, 데뷔골을 기록한 산드로와 중원의 살림꾼 정호연, 그리고 무실점 승리를 이끈 김현훈을 주간베스트11에 선정했다"고 밝혔다.

광주는 지난 7일 열린 충남아산FC 원정 경기에서 산드로, 마이키의 득점에 힘입어 2대0 승리를 거뒀다.

경기수훈선수(MOM)와 함께 주간 베스트11에 이름을 올린 산드로는 왕성한 활동량과 적극적인 압박, 동료와의 연계플레이로 공격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특히 전반 종료 직전, 이으뜸의 날카로운 패스를 K리그 데뷔골로 연결하며 팀 승리를 이끌었다.

미드필더 부문에 이름을 올린 정호연은 26개의 중거리패스와 13개의 전진패스, 7개의 획득을 기록하는 등 중원의 살림꾼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김현훈은 3개의 태클과 9개의 인터셉트를 기록, 탄탄한 대인방어와 안정적인 수비로 팀 무실점 승리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희중 기자

"금메달이 아니어도 괜찮아, 꿈을 꾸는 너희는 이미 최고야"

유석우 광주시핸드볼협회장, 빛고을 핸드볼 선수단 격려

유석우 광주시핸드볼협회장이 지역 핸드볼 선수들을 격려하는 뜻깊은 자리를 가졌다. 〈사진〉

유석우 회장은 지난 8일 빛고을 핸드볼 육성팀인 광주효동초(여), 광주농성초(남), 조대여중, 조대부중, 조대여고, 조대부고, 광주도시공사 선수단 전원과 협회 임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핸드볼 선수단 격려 만찬회'를 개최했다.

유 회장은 "지난 2년여간 코로나19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밝은 모습을 잃지 않고 운동과 학업을 병행하며 그 어느 때보다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특히 광주도시공사선수들이 광주효동초 꿈나무 선수들을 찾아 든든한 멘토 역할에 나선 것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 핸드볼인들이 더욱 단합해 더 큰 꿈과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맡은 바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만찬회는 올해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팀에 대한 포상금 전달식도 있었다.

광주핸드볼은 최근 폐막한 제19회 태백산기 전국종합핸드볼대회에서 광주효동초가 준우승, 조대여중이 3위를 차지했고, 제77회 전국종별선수권대회에서는 조대부중이 3위의 성적을 올렸다.

유 회장은 이들 팀 감독에게는 자신이 직접 준비한 선물과 팀 코치들에게는 각 30만원, 광주효동초 100만원, 조대여중 100만원, 조대부중 50만원의 격려금을 각각 지급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특별 초청된 초등부 선수단 가족들이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눈길을 끌었다.

/박희중 기자

K리그 용병 제도 바뀌나… 프로축구연맹 오늘 공청회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1일 K리그 외국인 선수 제도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K리그 현행 외국인 선수 제도의 변화 필요 여부와 변화 시 예상되는 영향 등에 관한 각계의 의견을 듣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K리그의 외국인 제도는 현재 '3+1'(국적 무관 외국인 3명·아시아축구연맹(AFC) 가맹국 소속 국가 선수 1명)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AFC가 다음 챔피언스리그(ACL)부터 외국인 선수 쿼터를 '5+1'(국적 무관 외국인 5명·AFC 가맹국 소속 국가 선수 1명)로 확대한다고 밝힘에 따라 K리그도 제도 변경 논의를 시작하는 상황이다.

이번 공청회에는 박태하 연맹 기술위원장, 박성균 연맹 사무국장, 유성한 FC 서울 단장, 신정민 전북현대 책임매니저, 황보관 대한축구협회 대회기술본부장, 이종성 한양대 스포츠산업학과 교수, 류청 히든K 편집장이 패널로 참석한다. 사회는 박문성 해설위원이 맡는다.

프로축구연맹은 이번 공청회를 시작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 올해 내 외국인 선수 쿼터제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야구 천재' 오타니 '10승-10홈런' 대기록 달성…'루스 이후 104년만'

MLB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 오타니 쇼헤이가 9일(현지시간) 열린 오클랜드 어슬레틱스와의 경기 7회에 솔로 홈런을 치고 있다. /EPA=연합뉴스

오클랜드戰 6이닝 무실점 완벽투…타석에선 '25호포'

'야구천재' 오타니 쇼헤이(28·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가 네 번째 도전 만에 한 시즌 투수 '10승-타자 10홈런' 대기록을 달성했다.

1918년 베이브 루스 이후 104년 만에 작성된 두 번째 기록이다.

오타니는 10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링센트럴 콜리세움에서 열린 2022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와 원정경기에 선발 등판해 6이닝 4피안타 5탈삼진 무실점 투구로 시즌 10승(7패)째를 달성했다.

타석에서도 3타수 2안타 1홈런 1볼넷 1타점 2득점으로 맹활약하며 자신의 대기록 달성을 자축했다.

이날 승리로 빅리그 5시즌 만에 처음으로 한 시즌 10승 고지를 밟은 오타니는 10승-25홈런을 기록하며 전설적인 타자 루스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

루스는 1918년 투수로 13승, 타자로 11홈런을 기록하며 대기록에 첫발을 내디뎠다. /연합뉴스

"오버 네트도 비디오 판독"

13일 개막 2022 순천 코보컵부터 새 배구규칙 적용

오는 13일 개막하는 2022 순천·도드람컵 프로배구대회에 오버 네트를 비디오 판독 대상에 추가하는 등의 새로운 경기 규칙이 적용된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최근 "2022 순천·도드람컵 프로배구대회에 지난 2021-20022 정규시즌을 거치며 보완·변경된 경기 규칙이 시범적으로 적용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비디오 판독과 관련한 새롭게 제정된 다수 규칙이 이번 대회에 시범 적용된다. 가장 눈에 띄는 새 규칙은 비디오판독 대상에 오버 네트를 추가하기로 한 것이다.

오버 네트란 블로킹을 제외하고 선수가 볼을 접촉하는 순간 상대편 공간으로 손이 네트 수직면을 침범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블로킹과 공격행위는 백스윙 여부로 판단한다.

연맹은 오버 네트 판정과 관련해 네트 한가운데 수직면을 촬영한 중계화면으로만 판독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이번 대회에선 모든 비디오 판독에 대해 추가 판독을 진행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인아웃과 터치아웃에 대해서만 추가 판독을 시행했지만, 추가 판독을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관련 규칙을 개정했다.

추가 판독 확대 시행은 주심요청 비디오 판독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항상 논란이 됐던 비디오 판독 요청 수용 시점도 명확히 한다.

랠리가 종료된 이후 A팀이 선수 교대를 신청한 뒤 B팀에서 판독을 요청하는 경우, 기록원이 선수 교대 완료를 뜻하는 사인을 보내기 전까지는 판독 요청을 수용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이소미, 대유위니아·MBN 여자오픈 2연패 도전

완도출신 이소미(23)가 12일 개막하는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대유위니아·MBN 여자오픈에서 대회 2연패와 시즌 첫 승에 도전한다.

지난해 이 대회에서 우승한 이소미는 12일부터 열리는 대유위니아·MBN 여자오픈에 출전한다.

2019년 KLPGA 정규 투어에 데뷔한 이소미는 2020년 1승, 지난해 2승 등을 거두며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올해는 아직 우승 소식이 없다.

4월 개막전으로 열린 롯데렌터카 여자오픈에도 '디펜딩 챔피언' 자격으로 출전했으나 준우승했다.

물론 준우승도 좋은 성적이지만 대회 2연패에는 실패한 만큼 시즌 두 번째 타이틀 방어전에서는 시즌 첫 승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각오다.

하반기 첫 대회로 지난주 열린 제주삼다수 마스터스에서도 공동 8위로 비교적 선전해 이번 주 기대감을 키운다.

이소미는 "타이틀 방어에 욕심이 난다"며 "상반기는 여러 문제가 한꺼번에 닥쳐 운이 없었지만 하반기에는 행운이 따르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7월 말 휴식기에 운동에 더 매진하며 하반기를 준비했다"며 "현재 컨디션이 아주 좋지는 않지만 이번 대회를 최대한 잘 치르도록 계속 끌어올리겠다"고 다짐했다.

상금 1위 박민지(24)도 이 대회와 인연이 깊다.

박민지는 2019년과 2020년 이 대회 정상에 올라 올해도 우승하면 최근 4년 사이에 세 번이나 MBN 여자오픈을 제패하게 된다. /연합뉴스

지난해 8월15일 열린 '대유위니아 MBN 여자오픈'에서 우승한 이소미가 트로피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KLPGA 제공〉

CMYK